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일시 (인터넷) 2026. 11. 15.(일) 11:00 (지면) 2026. 11. 16.(월) 조간 배포 2026. 11. 13.(금) 오후

해수부-해양환경공단, 선박 입항신고와 방제증서 발급 업무 '원스톱 서비스' 개시

- 11월 16일부터 중계망(EDI) 창구를 통해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한 번에 제공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 이하 '공단')은 11월 16일(월)부터 선박이 무역항에 입항할 때 필요한 '선박 입항신고'와 '방제증서* 발급' 업무를 단일 창구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박이 특정 해역 내에 방제선·방제장비를 배치·설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동안 해운대리점과 선사는 중계망 사이트(EDI)*를 통해 입항신고를 마친 후 공단의 'E-방제증서' 시스템에 별도로 접속하여 방제증서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동일한 선박 정보를 반복해서 입력해야 했다.

* 해운대리점·선사 등이 제출하는 항만물류 신고 서류를 표준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에 실시간 전송·연계하는 해양수산부 지정 중계 서비스

** ('25년 기준) 외항선 입항신고(81천 건) 대비 방제증서(28천 건) 신청률 약 34.5%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공단이 협력하여 중계망 사이트(EDI) 기반의 통합 신고 체계를 구축했다. 민원인은 중계망 사이트*에 접속해 선박 정보를 1회만 입력하면, 입항신고와 방제증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www.plism.com 또는 www.ulogishub.com

또한, 중계망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민원인은 공단의 'E-방제증서' 시스템을 통해 이전과 동일하게 방제증서를 신청할 수 있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용자 관점에서 행정 시스템의 비효율을 개선해 정보의 중복 입력 등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했다."라며, "앞으로도 해운물류 종사자들의 업무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산업과	책임자	과 장	정동원 (051-773-5770)
		담당자	사무관	양일동 (051-773-6211)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두한 (051-773-5280)
		담당자	사무관	하순봉 (051-773-5283)
담당 부서 (KOEM)	방제기획처 부담금관리팀	책임자	처 장	황인서 (02-3498-8591)
		담당자	차 장	곽선미 (02-3498-719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자유이용

참 고 **방제증서 발급 일원화를 위한 시스템 연계 프로세스**

